

LG전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기아 퇴치’ 캠페인

세계 식량의 날 맞아 전광판에 홍보영상

LG전자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기아 문제 해결을 외쳤다.

LG전자는 15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기아 문제를 해결 하자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영상은 기아 종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제작했다.

앞서 LG전자는 2011년부터 국제기구와 NGO 등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서 공의 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LG 희망스크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기관이 LG 희망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상영 중인 기아 종식 홍보 영상.



빅히트의 ‘주가’

기자 수첩

손 엄지
(*파이낸스&마켓부*)

주가 임에도 말이다.

적정 주가에 대한 의문은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최고 38만원을 목표주가로 제시한 증권사가 있는 반면, 16만원을 적정 주가로 내놓은 증권사도 있었다. 기업의 최대 리스크이자 장점은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가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유동성이 넘쳐도 너무 넘쳤다. 빅히트 청약을 앞두고 증시 대기 자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흥행이 예고됐다. 실제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카카오게임즈의 청약증거금에 비견할 만한 58조원의 자금이 빅히트에 쏠렸다.

주가 고평가에 대한 불안감은 ‘증권신고서’부터 시작이었다. 빅히트 공모가 산정에 PER이 아닌 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EV/EBITDA)를 사용한 것.

또 동종업계(Peer) 그룹 산정 기준도 의문이었다. 빅히트는 SM, JYP, YG 등 엔터 3사 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주가까지 공모가 산정에 활용했다.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아직까지 위버스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가입하는 유료 콘텐츠 서비스 수준이다.

당시 카카오 주가 조차도 “과열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때였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등 모든 계열사의 기대를 반영한

/sonumji301@

코웨이, 14년 연속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코웨이는 자사의 전략제품인 ‘아이콘(ic on)’ 정수기를 포함해 5개 제품이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가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뿐 아니라 제품의 인간성, 정직함, 혁신성, 미학, 윤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수상

작에는 ‘지-마크(G-Mark)’를 부여한다.

코웨이는 이번 수상으로 굿 디자인 어워드 1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도 안았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아이콘 정수기는 혁신 냉각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제품 내 컴프레셔를 없애고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가로는 A4 용지 사이즈(21cm)보다 슬림한 18cm이며 측면은 34cm에 불과해 주방 공간 활용도가 높다. 소음 발생의 원인인 컴프레셔를 없앤 덕분에 영국 소음저감협

GOOD DESIGN AWARD



굿 디자인 어워드 코웨이 수상 제품.

회에서 부여하는 ‘콰이어트 마크(국제 인증 마크)’를 정수기 최초로 획득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10월 19일 (음 9월 3일)



36년생 친구 병문안 갈 일이 있다. 48년생 고독에 꽂히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72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84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으니 마음을 접어라.



3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니 생각을 바르게. 49년생 근거 없는 칭찬을 남발하지 마라. 61년생 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오니주의. 73년생 소식이 오니 기쁘다. 85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38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50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62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74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 86년생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



39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예상. 51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63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75년생 약간의 먹구름 뿐 폭풍은 오지 않는다. 87년생 장기투자는 신중히 고려.



40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52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64년생 중요한 일은 비밀스럽게 행동. 76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편 보기 좋은 날. 88년생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41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53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5년생 행복은 기정의 회복에서 비롯된다. 77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89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양보해야 한다.



42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다. 54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6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8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90년생 뜻밖의 선물로 즐겁다.



43년생 고집을 부려 봄도 소용이 없다. 55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6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79년생 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간다. 91년생 꿈을 이를 계기가 온다.



44년생 버틸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 5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68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 돌아온다. 80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92년생 가뭄에 비 오듯이 순식간에 해결.



45년생 병이 있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57년생 원하는 일은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69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1년생 비벌 언덕이 필요한 하루. 9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46년생 낙숫물을 바위가 뚫리는 범이니 꾸준하게 노력. 58년생 당신의 발들을 찍는 것은 당신의 도끼. 70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기득하다. 82년생 삶의 목은 체증이 해소된다. 94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해야.



47년생 타협으로 일을 처리하라. 59년생 매매수가 있으니 오히려 이루어진다. 71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83년생 불행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검잡을 수 없이 카진다. 95년생 원숭이띠와의 거래를 잘 살펴야 한다.

<http://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계수준
수학퍼즐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7	C	6	A	5	3	B	9	1	4	8
5	A	4	7	9	6	1	2	8	1	6
3	B	2	1	5	9	8	7	4	2	7
1	C	9	8	5	3	6	4	3	9	6
2	D	7	6	4	1	9	5	8	3	2
4	E	5	3	2	8	7	6	9	1	4
6	F	8	1	6	5	4	3	2	7	9
8	G	9	7	4	3	2	1	5	6	8
9	H	5	6	7	8	9	2	3	4	1
5	I	3	4	1	2	6	7	8	9	5
7	J	2	3	5	6	8	9	1	4	7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김상회의四季

하차감



자동차에 관해 말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승차감이 참 좋아”라는 말이다. 승차감은 차를 타고 있을 때 몸으로 느끼는 편안함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승차감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겼다. 바로 하차감이다. 하차감은 차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즐기는 느낌을 말한다.

하차감을 즐기려면 비싼 차이거나 남들과 다른 차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젊은 세대들의 외제차 구입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비싼 차를 끌다 보니 돈에 허덕이는 카풀어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젊은 세대가 외제차를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불안을 담보로 당장의 즐거움에만 눈을 돌리는 건 웬지 우려스럽다.

한 사람의 운세를 말할 때 피해야 할 것 중의 하나로 빼지지 않는 게 노년의 빈곤이다. 초년에 부유하고 늙어서 가난한 운세가 좋을까, 아니면 초년에 좀 힘들어도 늙어서 부유하게 사는 운세가 좋을까.

빈곤이라는 게 젊어서는 추억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추함으로 다가온다. 젊을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넘어설 힘이 있고 혈한 옷을 입어도 멋져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쇠해지고 닥친 힘겨움을 이겨낼 에너지가 없다. 너도나도 노후준비를 걱정하는 건 그래서이다.

젊어서의 즐거움을 일부러 억제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고개를 조금 돌려 앞날을 보는 눈도 있어야 한다.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노년의 시간을 볼 필요도 있다. 긴 인생에서 노년을 빈곤의 운세로 만들어 버리는 건 말리고 싶다. 인생은 노년이 편해야 만족스럽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왜 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이 장 규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기 00206 2002년 5월 28일 제 4550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기 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654 호

</div